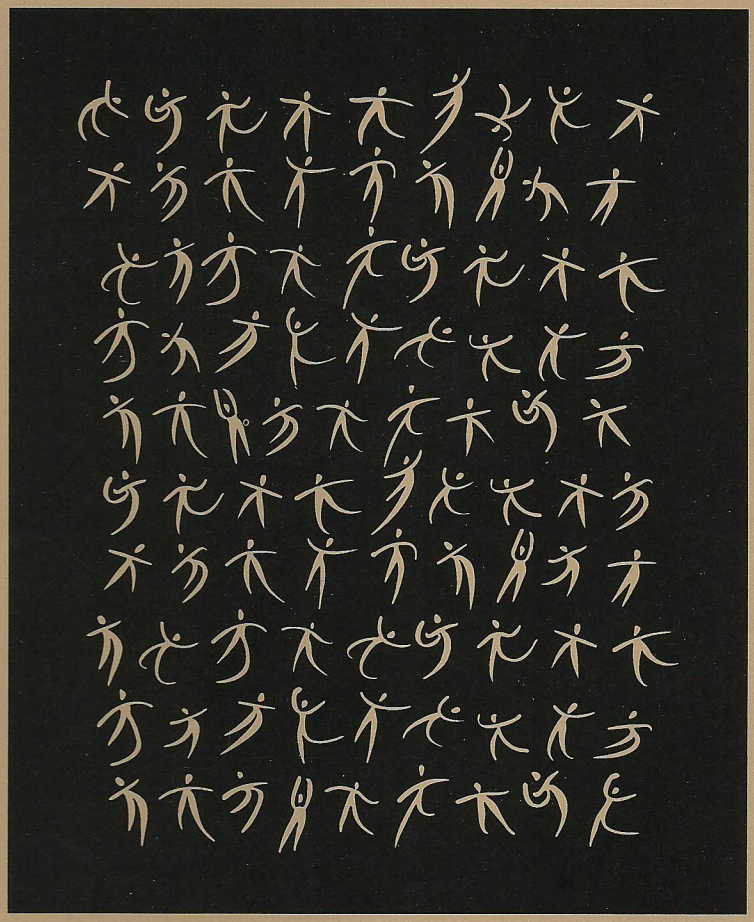
현대무용단 주ㅁ zoom

Modern Dance Group "Zoom"

제8회 정기공연



1995. 4. 12(수)오후7:30
4. 13(목)오후7:30

장소 : 경성대학교콘서트홀
주최 : 현대무용단 주-ㅁ
후원 : 현대무용단 주-ㅁ후원회, 경성대학교 무용학과
문의처 : (051)627-4386, (051)620-4961, (051)756-0238

Cleaving

'94 "상쾌한 아침"(재안무 : 김현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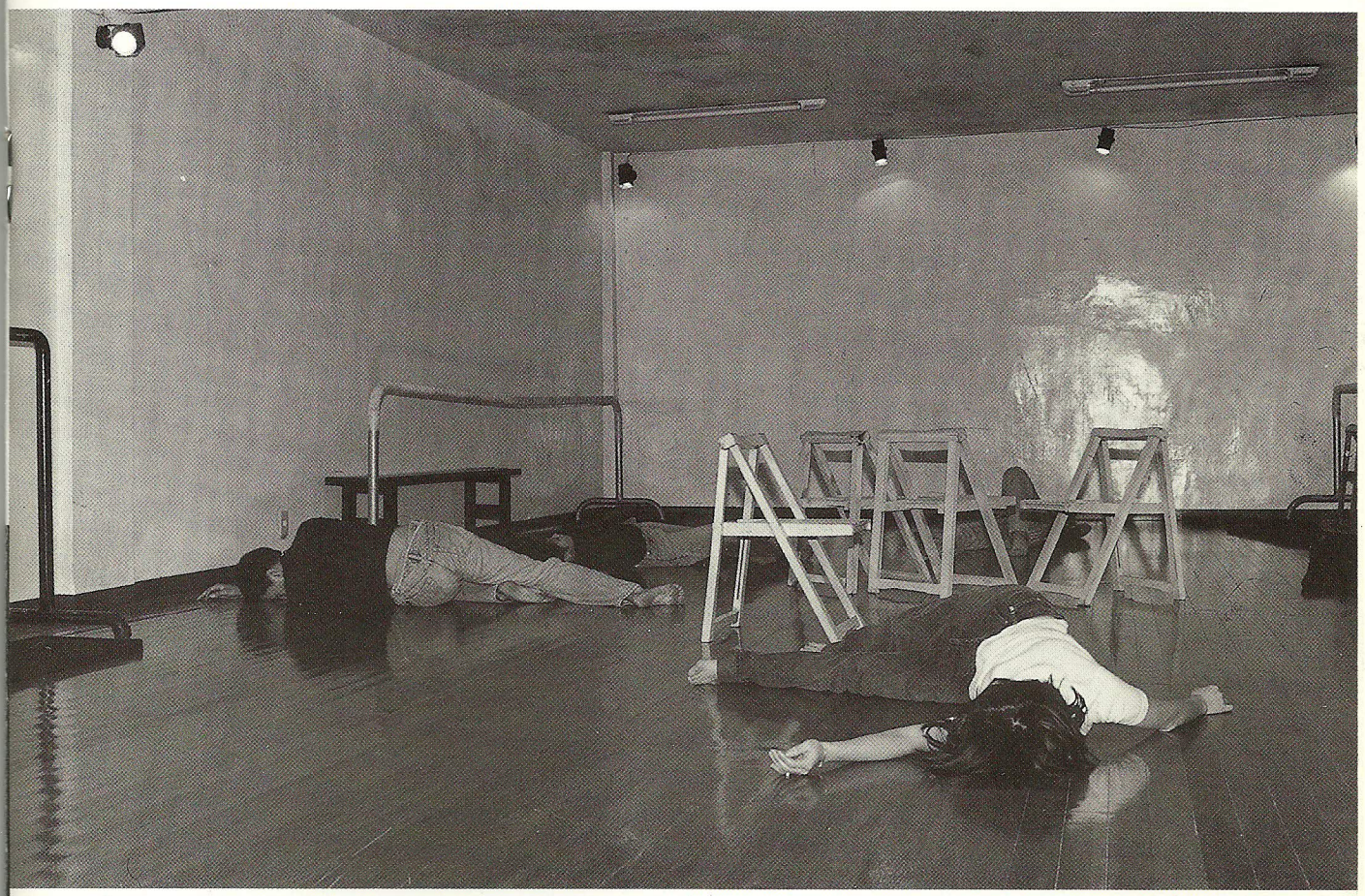
- **안 무** : 조 미 옥
- **출 연** : 조미옥, 이금화, 허선혜, 홍경민
- **음 악** : STARKER PLAYS KODALY 中에서
- 이 작품은 1994년 제7회 부산 여름 무용축제 WORKSHOP의 강사로 초대되었던 미국무용가 SALLY HESS로 부터 배운 움직임들을 토대로 재구성 해본 작품이다.

추(錘)

- **안 무** : 강 미 희
- **출 연** : 강 미 희
- **음 악** : Sound Sculptures
- 맨 먼저 부재 상태인 것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.
  기억속에서 오고 가고 있다.
  알수 없는 공허한 공간 속에서 만나고 있다.
  소리, 잡혀지지 않는 것으로 부터 느낌을
  찾아가는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 된다.

제3회 부산무용제 참가작 "황무지"(안무 : 강미희)

버리세요



• **안 무** : 곽 선 영
• **출 연** : 오정화, 강미라, 김현미, 윤유정, 안영준, 정현진
• **음 악** : Khalid Saleen & Beverly Botsford Siegfried Fink/beat the beat
• 때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.
배가 고파 양껏 먹어 치운 찌꺼기가 이빨사이에 끼어 날 괴롭힌다.
이쑤시개로 이빨 사이를 공들여 헤쳐도 껄끄럽기만 하다.
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온몸을 활활 태워 버렸으면 싶다.
내 머리속의 그 자질구레한 지식과
그물코 같은 생각을 바라보면 어느곳 하나 찌꺼기 없는 곳 없고
태가 낀 내벽엔 벌써 굳어버린 신경으로 어둠이 피고 있다.
가슴이 막막한 이 찌꺼기의 욕망을 어서어서 버리고 싶다.